

‘코로나19’ 영향 ...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 역대 최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광주와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기오염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광주·전남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각각 18 $\mu\text{g}/\text{m}^3$ ·15 $\mu\text{g}/\text{m}^3$ 로, 관측 이래 최저였다고 5일 밝혔다.

광주·전남의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광주 23 $\mu\text{g}/\text{m}^3$ ·전남 19 $\mu\text{g}/\text{m}^3$)과 비교해 각각 21.7%, 16.7% 감소한 것으로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았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광주와 전남 모두

국내 정책 전환과 국민 참여·중국의 미세먼지 개선 효과

에너지 소비량·선박 입출항·항공 운항편 수 감소 영향도

2015년 이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초미세먼지가 ‘나쁨’(36 $\mu\text{g}/\text{m}^3$ 이상)보다 안 좋았던 일수는 광주 22일·전남 7일로, 전년도에 기록했던 48일(광주), 24일(전남)과 비교해 대폭 감소했으며, 이 역시 관측 이후 최소였다.

한편 전국 시도별 2019년 대비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폭은 충북(7 $\mu\text{g}/\text{m}^3$ ↓)과 세종·전북

(6 $\mu\text{g}/\text{m}^3$ ↓)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대구(2 $\mu\text{g}/\text{m}^3$ ↓)와 울산·경북·경남·제주(3 $\mu\text{g}/\text{m}^3$ ↓) 지역의 개선 폭은 작았다.

환경부는 “계절풍에 따라 국외 영향이 적고 국내 영향이 지배적인 5~9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2015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국내 정책효과와 국민 참여로 국내 미세먼지의 기

저 농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0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국내 정책효과 ▲중국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개선추세 ▲코로나19 영향 ▲양호한 기상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추진됐다.

환경부는 코로나19에 따라 국가 최종에너지 소

비량, 선박 입출항 수, 항공 운항편 수 등이 감소한 영향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함께 지역별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변화 등 2020년 초미세먼지 개선 원인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아직은 기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에 발을 맞춰 산업·수송·발전 등 부분별 대책을 강화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생활 속 ‘탈 플라스틱’ ... ‘고고 릴레이’ 운동 시작

플라스틱 다이어트, 함께해요

1. 텀블러(개인컵), 다량용 컵 사용 생활화하기
2. 장 볼 때는 장바구니(메군백) 사용하기
3. 음식 포장 시 다량용기에 담아가기
4. 음식 배달 주문 시 인스는 플라스틱 거절하기
5.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 줄이기
6. 음료 구입 시 무라벨 제품 우선 구매하기
7. 온라인 상품 주문은 모아서 한꺼번에 하기
8.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 소비 줄이기
9. 포장 안한 상품 등 구매하기
10. 세탁 바늘 등 불필요한 바늘 사용 줄이기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 자원순환 실천플랫폼에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두 가지 실천 약속하고 SNS에 게시물 올려 참여

생활 속 ‘탈(脫)플라스틱’을 위한 ‘고고 릴레이’ 운동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5일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생활 속 탈(脫)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이어가는 ‘고고릴레이’ 실천 운동을 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운동의 주요내용은 생활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행동과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약속하는 것이다.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거부하 ‘고’, 해야 할 한 가지 실천을 하 ‘고’에서 따온 말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천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탈 플라스틱 실천운동의 첫 주자는 조병래 환경부 장관으로 조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일회용 빨대 사용하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생활 속 탈(脫)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고, 그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환경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조 장관은 다음 실천 주자로 조병래 장관은 격투기 선수 김동현, 염태영 수원시장, 박서정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미래세대 대표 등 3명을 지명했다. 이들 3인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거부하는 실천 약속을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고 각자 다음 도전자를 지명하게 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줄이기 생활 속 실천 운동 국민 확산과 더불어, 내부 조직에서의 실천 운동도 시작한다.

환경부는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참여 확대를 위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행사도 5일부터 두 달 동안 개최한다.

참여자는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두 가지 실천을 약속하고, #탈플라스틱, #고고릴레이, #플라스틱줄이기 해시태그를 첨부한 본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게시물을 올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참여자 수에 따라 500만원씩 적립해 행사가 끝난 후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9000만원 초과 고가 전기 승용차 보조금 못 받는다

환경부, 보조금 지침 행정예고

올해부터 9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보조금 산출 후 차량 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준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 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계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량 규모(초소형 512만원·경형 1100만원·소형 1600만원)에 따라 정액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남에서 멸종위기 I급 황새 1마리 발견

지난해 여름 러시아에서 방사

지난해 여름 러시아에서 방사된 멸종위기 I급 황새 1마리가 최근 해남에서 발견됐다. <사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5일 “세계자연기금 러시아지부가 지난해 현지에서 방사한 황새 1마리가 지난해 12월 25일 해남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황새는 지난해 6월 극동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역에서 구조된 개체로, 재활센터에서 회복한 후 같은 해 8월 13일 황해호 북부 지역 예브레이스카야 자치주에서 방사됐다. 현지 연구진은 황새의 몸에 위치추적시스템(GPS)을 부착했다.

연구진이 황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결과 황새는 지난 8월 13일 극동 예브레이스카야에서 방사된 이후 한반도 북부, 전북 김제를 거쳐 전남 해남으로 이동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지난해 세계자연기금 러시아지부가 구조한 후 방사한 멸종위기종 I급 황새(오른쪽)가 지난해 12월 25일 해남에서 발견됐다. <국립생태원 제공>

“지난해 여름 한반도에 영향 준 세 개의 태풍 제트기류 변화시켜 미국 서부 산불 일으켰다”

지스트 윤진호 교수팀 밝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20년 여름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야기했던 세 개의 태풍이 강력한 에너지로 제트기류를 변화시키면서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산불에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된 태풍은 2020년 8월 후반부터 9월 초까지 2주에 걸쳐 한반도에 영향을 끼친 ▲제8호 태풍(8월 22일) “바비(BABI)”, ▲제9호 태풍(8월 28일) “마이삭(MAYSACK)”, ▲제10호 태풍(9월 1일) “하이선(HAISHEN)”으로 이들 태풍은 남에서 북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피해를 유발했다.

2020년 태풍은 총 23개 발생했으며 그 중 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평년의 3.1개와 유사하나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5호 태풍 “장미(JANGMI)”를 제외한 세 개의 태풍은 2주안에 걸쳐 최대순간풍속 49.2m/s (제주 고

산, 마이삭)에 이르는 강한 바람과 많은 강수를 동반하며 한반도에 큰 피해를 일으켰다. 또한, 이러한 태풍은 북진하면서 열대지방의 고온다습한 에너지를 북쪽으로 전파했는데, 이러한 강력한 에너지는 제트기류를 변화시킬 정도로 매우 강했다. 이는 미국의 서부 해안가에 강력한 고기압을 만들어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산불과 연관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2020년 태풍의 진로 등 다양한 관측 자료와 다중 앙상블 예측실험자료(GEFS)를 사용하여 태풍을 예측한 실험과 그러지 못한 실험을 상대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결론을 유추하였다.

이번 연구는 지스트 지구·환경공학부 윤진호 교수와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연구진이 함께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로 기상청의 기후응용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지구과학 분야의 국제 저명학술지인 지구물리학회보에 2020년 12월 8일 온라인 게재됐다.

/채희중 기자 chae@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